



은근과 끈기

— 국회의사당을 설계하면서 —

안 영 배

편집자주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 신축설계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물의와 논란을 야기해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건축계의 현실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 보겠으며 그 진행되었던 설계과정의 어땀했던간에 지난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신문회관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었던 이후로는 일단 문제는 우리의 권의에서 매듭이 지어졌다 하겠다.

국회의사당 신축설계가 말로 그 의외로 보나 우리 한민족의 일대 커다란 사업이니 만큼 그동안 설계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영배 회원께서 그 동안의 많은 애로와 또 건축사들이 한국적인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상황을 오늘 본회지를 빌어서 발표하게 되었다.

건축가에게는 누구나 의욕을 느끼게 할만한 프로젝트가 많지만 그중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하나로서 국회의사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단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상징적인 건축물로 여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테임즈 강변에 우뚝 솟은 “빅벤”이나 미국의 와싱턴에 솟은 중앙청 돔은 유니온 잭이나 성조기에 못지않게 영국과 미국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사당을 건립해야겠다고 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여년 전 부터이다.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로 변해버렸지만 전에 이바사 동상이 서있었던 남산 언덕 위에 의사당을 계획하고 현상설계에 붙이게 되면서 부터 건축계는 자못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대로 여러가지 난관이 많았던 것이 기억된다.

남산대지에 의사당을 세우면 국민을 압도하는 기분을 줄뿐만 아니라 중앙청과 연결하는 주도로가 행사 때마다 차단될 우려가 많으므로 의사당 건립지로서 부적하다고 하는가 하면 아직 의사당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와같은 건축계나 온 국민이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의사당 건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후 10여년이 경과되고 나서 작년에 의사당 후보지가 여의도로 결정되면서 부터 국회의사당은 다시금 건축계의 화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필자는 일반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안이 당선된 연유로 해서 의사당설계를 하게 되면서부터 의사당 설계가 기술적인 면 이외에도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허다하게

가로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 큰 것의 하나를 든다면 국회의사당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제대로 잘 필가하는 염려와 혹시나 하는 기우가 설계자의 활동을 제한하기 쉬운 점과 주위의 조그만한 의견에도 영향을 줄만큼 설계자 재량을 약화시키기 쉬운 점들이다.

그래서 당국은 어느 개인에게는 도저히 설계를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이 주권인테 건축가가 여럿이서 협동설계한다는 것은 마치 뱃사공이 많은 배와 같아서 의견을 통일시키기가 지극히 힘든 일이다. 반면에 설계자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기 전에는 한사람이 주도해 나가기에는 벅찬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계의 사정을 참작한다면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른다.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가끼리 의견을 일치시키기도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욱 힘든 것은 이것이 한 나라의 의사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문하는 건축가는 물론 이를 주관하는 사무당국과 매다수의 국회의원이 찬동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관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자문위원인 건축가 한사람이 일본에서 前川國男氏를 찾아 갔을 때 의사당 설계에는 개성이 발휘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이러한 설계를 맡긴다 해도 하지 않을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아마 그것은 前川氏가 일본 국회도서관을 설계하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교훈 때문이 아닌가 짐작이 간다.

그래도 아직까지 설계가 이만큼 진전된 것은 자문하는 여러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당국의 뒷받침이 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성을 살릴 수 없고 어려운 난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닌상 싶다. 예를 들

면 브라질의 “오스카 니마이아”는 대통령으로부터 설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고 대담하게 설계할 수 있었고 인도의 샨디갈 계획 역시 “르 꼬루부제”는 만년에 모든 정성을 여기에 경주하면서 개성을 최대한으로 구사할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사당은 현상설계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건축가를 선정하는데 3년이나 걸렸으며 그리고도 두 사람 협동으로 설계하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은 처음부터 영국인 건축사에게 일임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이 모두 성공했느냐 하는 것은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많다.

우선 “브라질리아”의 경우 상원의 “돔”과 하원의 “접시”형태를 대조시켜 이 사이에 사무처 뿔력을 쌍관벽으로 말붙여 우뚝 솟게 한 것은 조형상 모뉴멘탈하게 잘 처리하였다고 보겠으나 상원의 “돔”과 하원의 “접시”형태가 의사당의 회의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것은 의문이고 사무처뿔력을 두 판벽으로 하여 맞붙여 놓은 것은 실내에서 서로 마주보이기 때문에 조망은 물론 채광상 좋지 못한 것이다.

르 꼬루부제의 샨디갈은 인도의 뜨거운 햇빛을 고려한 “프리즈 소레이유”와 거친 콘크리트의 텍스처가 잘 조화되어 있으며 회의장의 원통형이 르네상스의 “돔” 이상으로 강렬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 앞의 범원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허전한 기분을 주면서도 장차 이 건물을 증축을 고려할 때 전의 건물과 조화되게 배치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은 재고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의 의사당을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근대식이어서 경쾌하고 좋드라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경박성을 탓하는 이도 있다.

사실인즉 모든 점에서 만족할만하게 의사당을 설계하기란 어려운 일인가 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의사당 설계는 어느 개인에게만 맡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당국의 견해도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은 아직도 설계도상에 있지만 중간과정에 여러가지의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건물의 외관인 것 같다.

즉 한국미가 풍기는 현대식이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돔”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도 하며 현대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전미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견과 요구가 설계자에게 주어져서 이를 모두 만족시켜 나가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짧은 기간에 어떻게 설계자가 만족할만한 것을 만들어 낼수 있는나 하는 점이다.

일부의 과정을 보고 너무 건축가의 주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정치인들에게 좌우되는 것 같이 여겨져서 주위 사람들의 이 얘기에 얽매지 말고 소신껏 건축가의 주견을 밀고 나가라는 격려를 받을 때도 많다.

주량이 너무 크고 굵다느니 또는 돔을 붙였느니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모두 의사당 설계를 염려해서이겠지만 사소한 일인 것 같다. 주량이 굵고 가는 것은 건물 전체 균형에 따라 결정하는 “스케일”과 “프로포션” 문제이고 “돔”을 붙이는 것도 “돔”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유엔” 빌딩 회장의 지붕에도 “돔”은 있고 “니마이아”의 브라질 국회의사당이나 “후랭크로이드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에도 돔은 있다. 요는 르네상스 건축양식의 “돔”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의 기우가 컸었는데 사실인즉 그것 때문에 설계자들은 이 설계를 그만 두고 물러갈 작오까지 서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건축사가 소신껏 일해 나갈 수 있게끔 여건이 좋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축가의 위치를 기술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보다 향상 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 된다.

정부종합청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설계하다가 외국인에 넘어간 것은 확실히 우리 건축계에 있어서 큰 비극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건축가로 누구나 20층짜리 고층건물 정도를 도저히 설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의사당도 힘들꺼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건축사가 해낼 수 있겠느냐 하고 걱정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과 능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건축계에서 볼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사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공건물을 설계할때 우리들이 겪는 애로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의사당을 설계하기 시작한 작년부디 지금에 이르기 까지에는 파란극결과 재미 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다.

국회의사당 신축 설계는 어떻게 이러한 난관을 거쳐야 할 숙명적인 과제이지만 이만큼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근”과 “끈기”가 여러가지 면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